

# 1930년대 보그지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강은숙

광주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복식과 인체를 표현 주체로 하여 그려진 것으로 작가의 심리적 잠재 과정을 형상화 시킨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대 전제로 한 패션 정보와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을 주제로 한 것으로 분류된다.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능적으로 분류 해보면 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 추상적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뉜다. 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은 Realistic Illustration, Stylize Illustration으로 나뉘며 추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은 Symbol Illustration, Pattern Illustration으로 나뉜다. 즉 Fashion Illustration은 Stylize Illustration에 속한다. 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비교 해 볼 때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스토리와 연계되어

제 삼자를 위해 그려지는 그림을 말 하며, 회화란 작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려지는 그림이다. 회화 중 요즈음의 주류를 이루는 추상화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비교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다. 그러나 그 외에 구상이라든가 팝아트를 일러스트레이션과 구별 짓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 할 수 있으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의 모태가 순수 미술 이면서도 상업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미술 학자 들은 왜 이것을 분리 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19세기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전통적이며 인기 있는 설명적인 회화에서 시작 되었다. 이러한 설명적인 그림을 그리 는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제스처, 얼굴, 표정, 배경, 의상 등에서 같은 스타일을 따랐는데 이러한 것들은 독자들이 책이나 잡지들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었다. 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를 들라면, 전자는 그들의 작품에 대해 어떤 형태의 글도 그리기에 앞서 엄두에 두지 않고 그리며 이야기의 전개는 그림을 통 해서 전개 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림 그리기에 앞서 글이 선행 되며 그림은 항상 텍스트와 연계되어 글의 묘사 기능을 보충시켜 주는데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독자들은 으레 설명적인 회화를 기대하고 요구 했다. 이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이 회화로부터 자연스레 분리 되는 동기가 되었다. 패션과 문화라는 확고 부동한 위치에서 지난 100년 동안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온 보그지는 그 잡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각과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주요 조건은 유행의 섬세하고 특징적인 상황을 기술 하거나

또는 세련, 우아, 스마트함의 특징적인 느낌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가 되자 초현실주의가 아방가르드 그룹에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이동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바로 전에 큐비즘이 걸었던 길과 같은 것 이었다. 초현실주의는 De Chirico, Dalí, Pierre Roy의 작품, 그리고 Cecil Beaton의 사진과 직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었고, Christian Berard의 표현주의적 낭만주의에도 간접적이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 뿌리는 프로이트 심리학의 내면세계 몰입 이라는 특징을 지녔으며 콜라주와 실험적인 사진 기술에 의해 기술적으로 자유로워진 다다의 허무주의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그지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음껏 이용 하였으며 심지어 변형시키기 까지 하고 우아하고 유희적이며 또한 장식적이며 시적인 낭만적인 요소 까지 창출 했다. 1935년 미국은 대 공황과 뉴딜정책 사이에 있었다. 영국은 저물어 가는 태양과 같은 제국이었으나 서서히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1930년 대 후반은 구시대가 사라지고 예측 불허한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복식의 모양은 덜 딱딱해지고 옷과 머리는 더 길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장식은 더 풍부하게 변 했다. 다다의 허무주의 경향은 초현실주의의 decadence로 대치되었다.